

기숙사 비방 시 강제 퇴사 규정, ‘표현의 자유’ 논란

아름원 세칙 논란

안나연 기자 na@khu.ac.kr

【서울】 지난달 14일, 온라인에 게재된 서울캠퍼스 신축 행복기숙사 아름원(아름원)의 「2018 운영내규」는 ‘인터넷, 모바일,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를 하는 자는 강제 퇴사 조치(영구 입사 불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다수의 학생들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칙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된 세칙은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기숙사생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허위사실 유포자 적발 시 강제 퇴사 조치가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에 대한 논란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비방’이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건설적인 비판이 비방으로 낙인 찍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보인다.

한편 다른 학교에도 이와 동일한 세칙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과학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전체 18개의 행복기숙사(기숙사 중 33.3%에 달하는 6개의 기숙사(경희대, 세종대, 제주관광대, 한양대 서울캠퍼스(서울캠), 한양대 애리카 캠퍼스(애리카캠), 상명대)가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시 기숙사생에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인 경희대, 세종대, 상명대 행복기숙사가 허위 사설 유포자 적발 시 즉각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즉각적인 퇴사처리 대신 처벌을 내리는 기숙사들은 모두 벌점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가장 약소한 처벌을 내리는 기숙사는 제주관광대로, 누적된 벌점이 총 15점일 때 강제 퇴사조치를 취하는 세칙을 갖고 있고 온라인 허위사실 및 비방 행위 시 이의 20%에 달하는 벌점 3점을 부과한다. 한양대 서울캠은 누적된 벌점이 총 20점일 때 강제 퇴사 조치를 취하는 세칙을 가지고 있고 그에 25%에 달하는 5점을 부과한다. 한양대 애리카캠의 경우 벌점 누계 10점일 시 강제 퇴사 조항을 갖고 있는데,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시 퇴사 가능 벌점의 70%에 달하는 벌점 7점을 부과한다.

작년 2학기에 아름원에 입사해 1년째 생활 중인 A씨는 “애초에 처벌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작년부터 생활해보니 악의적으로 훨난하는 학생들은 일부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원이 가지고 있는



“

과잉금지 원칙을 생각했을 때,
내규를 정함에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

행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방 시 처벌’ 조항을 내걸어 건설적인 비판도 비방으로 치부돼 강제 퇴사 당하지는 않을까 무섭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기숙사 내 마약 유통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 ‘기숙사 내 폭행, 도박, 절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아름원에서 생활 중인 B씨는 “허위사실이 문제라면 벌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비방과 별개로 아름원의 장점을 보고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예훼손 명목으로 강제 퇴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과하다고 느껴진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에 아름원 행정실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생뿐만 아니라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외부에 비춰지는 우리학교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름원 행정실 윤필영 계장은 “강제 퇴사 조치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면 강제 퇴사 조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기숙사 측의 공식적인 해명이 부재해 기숙사와 기숙사생 간의 대립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달 23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경희숲_29448' 게시물은 해당 세칙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기숙사가 학생을 상대로 거주지를 볼모로 한 막대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숙사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강제 퇴사 조치는 궁극적으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보성(자율전공학, 2018) 씨 역시 “타 지역에서 와 분명한 거주지가 없는 입장에서는 처벌 여부를 떠나 해당 조항을 내건 것 자체가 기숙사의 큰 권력으로 느껴져 불편하다”며 강제 퇴사 조치를 비판했다.

이처럼 해당 세칙이 ‘기숙사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갖는 권력에 기인한 횡포’라 지적받은 것에 대해 아름원 행정실 윤필영 계장은 “기숙사에게 권력이 있단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기숙사는 사생을 기준에 근거해서 뽑을 뿐, 마음대로 학생을 선별할 권력은 부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숙사생들의 불만에 대해 윤 계장은 “학생을 제재하거나 언로를 차단하고 탄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할 계획”임을 밝히며

“대다수의 건전한 비판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점은 ‘허위사실 유포’에 있다”며 “비방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방’일 뿐, 건설적인 비판까지 통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얘기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헌법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해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을 강조한다.

물론 기숙사가 입법기관과 대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인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을 생각했을 때, 내규를 정함에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윤 계장은 ‘비방’이라는 단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갖는 논란의 여지를 인정했다. 따라서 해당 세칙에서 ‘비방’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대체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이미 정해진 뒤 공표된 세칙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3월 28일부터 실시하되, 4월 종문구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전했다.

프랜차이즈 첫 학내 입성, 대기업 입성 물꼬 트나

박예령 기자 cyon03@khu.ac.kr

【서울】 호텔관광대학(호관대) 외부 카페 자리에 이디야 커피(이디야)가 지난달 20일 문을 열었다. 우리학교 내부에 사기업이 자리 잡은 것은 학교 설립 이후 처음 나타난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학교가 그간 외부업체를 들이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학내에 나타난 이디야의 모습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생소하다.

프랜차이즈의 학내 입성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우리학교는 사기업을 학내에 들이지 않았다. 대신 경희대 생활협동조합(생활)이 2003년 이후 학내 매장과 복지시설 등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디야 입점은 학생의 취업과 연계되는 계약조건, 산학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결정됐다. 재

정예선처 재정사업팀 관계자는 “호관대와 이디야의 협약사항과 산학협력의 실의를 따졌을 때 괜찮은 조건이라 판단해 이디야 입점을 수용한 것”이라며 “사기업의 인턴십과 채용연계는 호관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디야가 들어서기 전 해당 위치엔 생협이 운영하는 카페 매그놀리아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중앙도서관, 경영대학, 호관대에 위치했던 셀란이 영업을 종료한 뒤, 생협은 구성원과 대학본부의 요청에 따라 세 곳 모두에서 카페 매그놀리아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 호관대를 제외한 중앙도서관과 경영대학 매그놀리아는 임시운영이 종료된 이후 생협 직영점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호관대 카페 매그놀리아의 임시운영 종료를 앞두고 대학본부는 1월 말 카페 운영 주체에 대해 여러 기업들과 접촉했다.

운영주체 선정의 주요 기준은 학생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였다. 호관대 학생들은 ‘베이커리 경희’ 때처럼 학생실습이나 인턴채용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베이커리 경희는 2007년 출범했던 학교 기업으로 학생들에게 실습의 장을 제공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학생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여러 업체와 접촉했고 이디야 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디야는 이미 지난해 5월 호관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호관대는 단과대학 특성상 외식이나 호텔 분야 기업과 지속

적으로 산학협력을 체결해왔다. 이 협약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디야는 학생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카페운영을 결정한 것이다. 입점에 따라 우리학교와 이디야가 추가로 협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매출 6억 초과 달성 시 초과 매출의 10%를 우리학교에 기부 ▲호관대 내 별도 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지원 ▲이디야 커피랩 교육 및 인턴 채용 ▲50잔 이상 구매 시 교내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이 그 내용이다.

이정원(외식경영학 2015) 씨는 “이전에 비해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테이블에 앉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지(외식경영학 2013) 씨는 “가격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커피의 품질도 괜찮고 인턴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긍정적이다”고 답했다.

한편 생협 입장에서는 외부 업체의 입점이 아쉽다. 비영리법인인 생협은 별어들인 수입을 다시 학교에 환원하는 체제로 학교 구성원과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생협 심현철 팀장은 “인턴십이나 실습은 본래 생협의 설립 취지와도 달라서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나 준비할 계획”이라며 “작년 9월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사업 초기단계”라고 말했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이디야 커피가 입점한 것과 비슷한 논리로 다른 사기업이 하나둘씩 들어오면 예외라고 설명해야 하는 매장이 늘어난다”며 “비슷한 조건을 내건 사기업들이 점포를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게 될까봐 걱정스럽다”며 대학 공간이 상업화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내비쳤다.